

# 다니엘서 - 제131번

예언의 태피스트리를 드러내며: 요한계시록에서 오늘의 현실까지 점을 잇다

Jeff Pippenger

2024-03-12

앞선 글들에서 우리는 밀러주의자들이 자신들이 열 처녀의 비유와 하박국 2장, 그리고 에스겔 12장 21절부터 28절을 성취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에스겔의 그 구절들은 마지막 때에 이 세 예언적 본문들이 온전히 성취될 때 "모든 묵시의 효력"이 발휘될 것임을 밝힌다. 화이트 자매 또한 이 현상에 대해 언급한다.

요한계시록에서 성경의 모든 책이 만나 끝을 맺는다. 여기에는 다니엘서의 보완이 있다. 하나는 예언이고, 다른 하나는 계시이다. 봉함된 책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말세에 관한 다니엘의 예언 중 그 부분이다. 천사는 명하여 이르되, '그러나 너 다니엘아, 이 말을 간수하고 그 책을 마지막 때까지 봉하라.' 다니엘 12:4. 사도들의 행적, 585.

열 처녀의 비유는 14만 4천 명의 인치는 때에 글자 하나까지 그대로 반복되는데, 그때는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되어 곧 임할 일요일 법령 때 어리석은 처녀들에게 문이 닫히면 끝난다. 그 역사적 기간에는 "성경의 모든 책들이 만나고 끝난다"에 나타난 모든 이상의 효과가 드러난다.

이전 글에서 우리는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나타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공화주의 뿔의 정치사를 가리키는 역사의 외적 흐름을 제시하기 위한 이해의 토대를 쌓아 왔다. 그 역사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참된 개신교 뿔의 종교사와 병행한다. 우리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공화주의 뿔을 다루는 몇 가지 예언적 흐름을 식별했으며, 그 흐름들을 1989년에 시작된 마지막 때의 예언적 역사에 적용하고 있다.

1776년에 시작되어 1798년 끝의 때에 결론을 맺은 땅의 짐승의 예언적 기간은, 지금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모든 선들을 하나로 모으려는 우리의 시도에서 사용하려는 선이다. 1776년부터 1798년까지의 기간에는 알파와 오메가의 표식이 있는데, 국가가 말하는 것인 입법 행위로 시작하여 또한 입법 행위로 끝나기 때문이다.

"한 국가가 말한다는 것은 그 입법 및 사법 당국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The Great Controversy, 443.

땅의 짐승의 주된 특징은 말한다는 점이다. 미합중국 헌법은 종교적·정치적 자유의 문을 연 신성한 문서였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유럽의 군주들과 가톨릭 교회에 의해 수세기 동안 계속되어 온 박해의 '홍수'를 삼켜 버렸다.

뱀은 여자를 뒤쫓아 자기 입에서 홍수 같은 물을 토해 내어 그녀가 그 물에 휩쓸려 가게 하려 했다. 그리고 땅은 여자를 도와 입을 열어 용이 자기 입에서 토해 낸 그 홍수를 삼켜 버렸다. 요한계시록 12:15, 16.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으로서의 땅의 짐승의 통치가 끝날 때, 그 짐승은 다시 말할 것이나, 그때에는 일요일 법령을 시행함으로써 용처럼 말할 것이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에게는 어린양 같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요한계시록 13:11.

1798년에 교황권이 권세를 빼앗겼을 때, 땅의 짐승은 여섯째 왕국으로 등장했다.

"그리고 교황권이 그 힘을 빼앗겨 박해를 중지하도록 강요되었을 때, 요한은 용의 음성을 메아리치며 같은 잔혹하고 신성모독적인 일을 계속해 나갈 새로운 권세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교회와 하나님의 율법에 맞서 전쟁을 벌일 마지막 권세인 이 권세는 어린양 같은 뿔을 가진 짐승으로 상징되었다." 시대의 징조, 1899년 11월 1일.

1798년, 교황권이 치명상을 입었을 때 미국이 발언했고, 알파와 오메가가 늘 그러하듯 처음의 발언이 끝의 발언을 예표했다. 외국인 및 선동법은 1798년에 법으로 제정되어, 불법 이민과 언론을 다루는 마지막 때의 법들을 예표했다.

우리가 1776년부터 1798년까지 고려하는 이 기간은 알파와 오메가의 표식을 지니고 있는데, 그 시작에서 독립선언서의 "말하기"를 가리키며, 그 "말하기"는 1798년의 외국인 및 선동법을 예표한다. 그 기간의 중간에는 미합중국 헌법이 있다. 이 기간은 땅의 짐승의 통치를 예언적으로 표상하는데, 양처럼 말하기 시작하지만 용을 나타내는 입법으로 끝난다. 그러나 흔히 그렇듯이 어떤 것의 시작과 끝은 서로 반대되는 것과 호응한다. 그 기간의 첫 번째 이정표는 마지막 이정표에 반영되어 있으며, 중간 이정표는 미합중국 헌법이었는데 이는 열세 개 주에 의해 비준되었다. 히브리어 "진리"라는 단어는 히브리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 이어 열세 번째 글자, 그리고 마지막 글자로 만들어졌다.

우리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기간은 진리이신 처음과 나중의 표징을 지니고 있다. 그 기간은 성경 예언에서 여섯째 왕국인 땅의 짐승의 통치가 시작되는 때로 이끄는 기간을 나타내며, 그러므로 성경 예언에서 여섯째 왕국인 땅의 짐승의 통치가 끝나는 때로 이끄는 기간을 나타낸다. 그 기간은 1989년 끝의 때에 시작되었다. 1776년부터 1798년까지의 기간은 1989년부터 가까운 장래의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겹쳐 놓아야 하는데, 그때는 외국인 및 선동법으로 대표되듯 땅의 짐승이 용처럼 말하는 때이다.

우리의 연구에 또 하나의 예언적 진리를 포함시키는 것은 가치가 있다. 그 진리는 흔히 간과되는 상징인 '끝의 때'의 한 요소이다.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는 1798년이 '끝의 때'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이해는 대개 거기에서 끝난다. 왜냐하면 모든 개혁 선이 다른 개혁 선들과 병행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든 개혁 선은 '끝의 때'로 시작한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예표했고, 그 사실을 모세가 직접 말했으며,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그것을 확증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신명기 18:15.

예수는 모세와 "같은" 분이 될 것이었다.

이제 형제들아, 너희가 무지로 그렇게 한 줄을 나도 아노니, 너희의 지도자들도 그러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리라고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미리 보이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는 주의 임재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가 지워지게 하려 함이라. 또 주께서 일찍이 너희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니, 하늘은 만물이 회복되는 때까지 그분을 받아 두어야 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 그의 거룩한 모든 선지자들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니라. 모세가 참으로 조상들에게 말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들을지니라.' 하였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멸절을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또한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 뒤에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들도, 말한 자마다 이 날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였느니라. 사도행전 3:17-24.

모세의 역사에서 끝의 때는 그의 탄생이었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표했다. 그리스도와 모세의 탄생 때에는 그 세대를 시험할 지식의 증가가 있었다. 그들의 탄생에 관한 지식은 이집트와 로마의 용의 권세로 하여금 예언으로 약속된 자들을 죽이려 시도하게 했다. 언덕 위의 목자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끝의 때에 일어난 지식의 증가를 이해한 자들을 대표한다.

흔히 간과되는 것은 종말의 때에는 두 개의 이정표가 있다는 점이다. 태어난 사람이 모세만이 아니었고, 그보다 3년 앞서 그의 형 아론이 태어났다.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6개월 전에 그의 사촌 요한이 태어났다. 1798년은 가장 일반적으로 '종말의 때'로 인식되며, 1798년에 암흑시대 내내 음녀가 타고 다니던 짐승(즉 정치적 기구)이 죽임을 당했고, 그로부터 1년 뒤에는 그 짐승을 타던 '여자'도 죽었다.

1989년에는 대통령이 두 명 있었다. 레이건은 1989년 취임식 때까지 통치했고, 그 뒤에 부시 1세가 통치를 시작했다. 천이백육십 년의 끝은 바빌론에서의 칠십 년 포로 생활로 예표되었으며, 다리오의 조카인 장군 고레스가 잔치의 밤에 벨사살을 처형했을 때 실제 왕은 다리오였다. 다리오와 고레스는 그 마지막 때의 두 이정표를 상징한다.

모세와 아론, 요한과 예수, 다리오와 고레스, 교황권과 교황, 그리고 레이건과 부시 사이의 예언적 관계는 올바른 방법론으로 연구될 때 모두 예언적 빛의 원천이 된다. 여기서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의 사촌인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으며, 이는 모세의 형제 아론이 모세의 목소리가 되기 위해 그를 만나러 광야로 나아간 것으로 예표되었다는 점이다.

그리스도의 기름부음에 앞선 30년과 적그리스도에 앞선 30년에는 '소리'를 가리키는 이정표가 있다. 그리스도의 경우 그 '소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요한의 소리였다. 533년에 유스티니아누스는 적그리스도를 이단을 바로잡는 자이자 교회의 머리로 규정하는 칙령을 내렸다. 유스티니아누스의 그 칙령은 538년 오를레앙 공의회에서의 일요일 법 '칙령'을 준비한 '소리'였다.

키루스 장군의 군대는 다리우스의 바빌론 정복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목소리였다.

바벨론 성벽 앞에 고레스의 군대가 나타난 것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포로 생활에서의 해방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징조였다. 고레스가 태어나기 한 세기 이상 전에, 영감으로 그의 이름이 분명히 지목되어 언급되었고, 그가 바벨론 성을 예기치 않게 함락시키고 포로 된 자들의 해방을 위한 길을 예비하게 될 실제 일이

기록되었다. 이사야를 통해 그 말씀이 주어졌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 그 앞에 민족들을 굴복시키며 ... 그의 앞에서 두짝문을 열게 하고, 그 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네 앞서 가며 굽은 곳을 곧게 하고, 늦문을 부수며 철빔장을 꺾으리라. 내가 네게 어둠 속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감추어진 재물을 주어, 너를 이름으로 부르는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네가 알게 하리라.” 이사야 45장 1-3절. 선지자와 왕들, 551쪽.

예언적인 '끝의 때'가 두 증인 또는 두 개의 이정표에 의해 확립된 것임을 인식하게 되면, 두 이정표 중 하나가 다가올 역사에 대한 식별, 선포 또는 경고를 나타낸다는 것도 인식될 수 있다. 아론, 요한, 고레스, 그리고 유스티니아누스는 끝의 때에 앞서 놓이는 이정표를 대표한다. 1798년의 끝의 때는 1776년부터 1798년에 이르는 기간의 종결이다. 그 역사 한가운데의 이정표는 다가올 역사를 알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이다. 그 역사는 왕이나 교황의 독재적 지배를 거부하는 출판물로 시작했고, 독재자의 성격을 나타내는 출판물로 끝났다. 중간에 나온 출판물은 다가올 역사에 대한 '경고'를 나타냈고, 그 경고는 그 역사의 끝에 미국 헌법이 전복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 역사적 흐름은 1989년에 반복되기 시작했으며, 1789년, 곧 200년 전에 광야에서 나온 경고가 거절되는 일요일 법령에서 끝난다. 1989년은 40절의 끝에서 종말의 때였고, 1798년의 종말의 때와 일치한다. 1989년은 1776년과 상응하고, 일요일 법령은 1798년을 상징한다. 모든 이상의 효력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 한가운데에서,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되어 1789년의 경고까지 이어지는 역사가 성취되고 헌법이 무효화된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므로, 그 중간에는 반드시 이정표가 있어야 한다. 그 이정표는 곧 임할 일요일 법령에서 시작되는 예언적 역사에 대한 경고를 나타낼 것이다.

1989년은 41절의 일요일 법령으로 이어지는 40절의 종말의 때를 가리킨다. 종말의 때 이후이지만 일요일 법령 이전에 도착한 경고 메시지는 2001년 9월 11일이었다. 그것은 그 역사적 기간의 끝에, 2001년 9월 11일에 도래하여 즉시 억제되었던 세 번째 화가 예상치 못한 기습으로 다시 타격하여 수천 개의 도시가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 파괴가 도래할 때 사탄은 그의 놀라운 일을 시작할 것이며, 그 일은 임박한 일요일 법령에서 시작된다.

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거의 상상승배에 내어주어진 수천 개의 도시들에 임박한 멸망을 자각하기만 한다면! 그러나 진리를 선포해야 할 많은 이들이 형제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다. 회심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마음에 임할 때,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비판하고 허물어뜨리려는 성향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그들은 빛이 세상에 비치는 것을 가로막는 자리에 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비난과 정죄는 그칠 것이다. 원수의 세력들이 전투를 위해 집결하고 있다. 치열한 투쟁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형제자매들이여, 서로 굳게 뭉치라, 굳게 뭉치라. 그리스도와 굳게 연합하라. '너희는 "동맹"이라 말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그분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그를 너희의 두려움으로, 너희의 무서움으로 삼으라. 그리하면 그는 너희에게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 모두에게는 걸림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는 울무와 덧이 되시리라.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걸려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부서지며, 올무에 걸리고, 사로잡히리라.'

세상은 하나의 극장이다. 그 배우들, 곧 그 거민들은 마지막 위대한 드라마에서 자기 몫을 연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 사람들의 시야에서 하나님은 사라졌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결탁할 때를 제외하고는, 인류 대중 가운데 일치가 없다.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 반역한 백성들에 관하여 그분이 가지신 목적은 성취될 것이다. 비록 하나님께서 혼란과 무질서의 요소들이 한동안 권세를 잡도록 허용하고 계시지만, 세상은 사람들의 손에 맡겨진 것이 아니다. 아래로부터 오는 한 권세가 드라마의 마지막 위대한 장면들을 일으키기 위해 일하고 있다—사탄이 그리스도로 가장하여 오며, 비밀 결사로 서로 결속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서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역사하는 것이다. 결탁하려는 열망에 굴복하는 자들은 원수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원인 뒤에는 결과가 따를 것이다.

죄악은 거의 그 한계에 이르렀다. 혼란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으며, 머지않아 큰 공포가 인류에게 닥칠 것이다. 종말이 매우 가깝다. 진리를 아는 우리는 곧 세상에 엄청난 놀라움으로 닥칠 일에 대비해야 한다. 리뷰 앤드 헤럴드, 1903년 9월 10일.

1789년에 헌법이 제정될 때 예표된 경고는 14만 4천의 인침이 시작될 때 둘째 가데스로 되돌아오는 셋째 천사의 경고다. 그 경고는 요한계시록 18장의 첫째 음성의 경고이며, 그때 뉴욕시의 거대한 건물들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헌법의 본질 자체도 바뀌었다. 헌법은 영국법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며, 그 기본 철학은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라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다. 헌법은 로마법이라 불리는 것을 배척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는데, 그 기본 철학은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유죄'라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다.

헌법으로 상징된 1789년의 광야에서 온 경고는 2001년 9월 11일의 경고를 대표하며, 불타는 건물들이 말 그대로의 성취로 그 역사에 표식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애국법의 통과(말하자면) 또한 그 경고를 대표했다.

애국법(2001년 테러리즘을 요격 및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미국을 단합하고 강화하는 법)은 2001년 9월 11일의 테러 공격 직후 미국 의회에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2001년 10월 23일 하원에, 10월 24일 상원에 발의되었다. 2001년 10월 26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률이 되었다. 애국법은 정부의 테러 행위를 조사하고 방지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감시와 법 집행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사람은 무죄라는 영국법의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원칙을 거부했다. 오늘날에도 정부 내부의 엘리트들이 법적 적법절차, 사생활의 권리 및 공정한 재판을 우회하기 위해 여전히 이를 사용하고 있다.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두렵고 엄숙한 때에 우리의 형편은 어떠한가? 아, 교회 안에 얼마나 교만이 팽배하며, 얼마나 위선과 기만이 많으며, 치장을 사랑하고 경박함과 오락을 즐기는 마음이 얼마나 크며, 으뜸이 되려는 욕망이 얼마나 강한가! 이 모든 죄가 우리의 정신을 흐리게 하여 영원한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게 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해 성경을 상고하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를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과, 이 속죄의 일이 진행되는 동안 죄인인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위치에 관하여 바르게 이해하지 않겠는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우리는 단호한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는 참된 회개로 주님을 찾아야 하며, 깊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여 그것들이 도말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현혹의 땅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험의 기간이 끝나 가는 때에 빠르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모든 영혼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입술에 오르고 우리의 경우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날이 얼마나 가까운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 그 결정이 과연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의인들과 함께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악인들과 함께 수에 들 것입니까?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앞에서 네 배도와 영적 후퇴를 회개하라. 파수꾼들아, 깨어나 나팔에 분명한 소리를 내라. 우리가 선포해야 할 것은 분명한 경고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에게 이렇게 명하신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보이라.' 백성들의 관심을 얻어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노력은 헛되다. 설령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그들에게 말한다 해도, 그의 말은 마치 죽음의 차가운 귀에 말하는 것처럼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 깨어 행동해야 한다. 교회가 길을 준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결코 임하지 않는다. 간절하고 깊은 마음의 살핌이 있어야 한다. 연합하여 인내로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한다. 옛날처럼 몸에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검비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자축하거나 스스로를 높일 가장 작은 이유조차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스스로 낮추어야 한다. 그분은 참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나타나 위로하시고 복 주실 것이다.

우리 앞에 일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참여하겠습니까? 우리는 신속히 일해야 하며,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위대한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허비할 시간이 없으며, 이기적인 목적에 빠져 있을 시간도 없습니다. 세상은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으로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빛을 전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맡기신 일이 있고, 각자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이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곧 우리의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오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여 떠나게 하시겠습니까? 그의 임재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복되신 구주를 들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 지신 짐을 감당하기에는 자신의 안일함을 너무 사랑한다는 이유로, 영혼들이 진리의 지식 없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잠에서 깨어납시다.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87년 3월 22일.